

이발...점심...투약
영정촬영...구강검진

청년불자 150명 어르신 공경



신행 현장

조계사 독거노인 1400명 위안잔치



15일 조계사에서 열린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위안잔치' 무료 온열치료소에서 한 청년불자가 노인들의 시중을 들고 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만 알고, 노인 공경할 줄은 전혀 몰라" 노인들이 흔히 하는 푸념. 그러나 15일 조계사에 와 본 사람들은 20~30대의 젊은이들과 60~70대의 노인들이 사이좋게 어울리는 다정한 모습을 보며 '젊은 요즘 젊은 것들'에서 '기특한 젊은이들'로 인식이 바뀌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조계사 청년회와 서울불교청년회, 대한불교청년회 서울본부 등 청년불자 150명은 중로구, 중구 관내 홀로 사는 노인 1400명을 초청해 머리로 깎아드리고 점심도 제공하며 구강검진, 무료투약과 더불어 영정사진도 촬영해주는 등 하루종일 실새 없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기특한 젊은이들" 칭찬

홀로 사는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등 노인문제가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노인복지 대책은 거북이 걸음이라 노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심각할 정도. 조계사 청년회 등 불자들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따뜻한 부처님품 안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인들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정성껏 수발을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마질을 하는 등 하루동안 주부가 됐다. 무료이발소, 약국, 사진관, 온열치료소, 기 맞사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천막을 치는 청년불자들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고 무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노인들의 무표정했던 얼굴에는 어느새 푸근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매일 한차례 서울불교청년회 회원들과 탑골공원에서 신앙상담, 무료의약상담, 법률상담을 실시해온 유호순(39·롯데백화점내 약국 운영)씨는 이번 자원봉사에도 참여했다. 유씨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약을 드시고 더 건강해지

고 편안해지시기를 기원드려요"며 한복한복 정성껏 약을 조제했다. 개인사업을 하는 김태석(39)씨. 회사일에 쫓겨 진정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김씨도 공양간에서 김치전도 굽고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김씨는 "2주전부터 노인들에게 드릴 목욕기를 포장하는 등 노인들 치를 준비하면서 청년회 회원들간의 친목이 더 두터워진 것 같다"며 "몸은 힘들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피곤이 절로 가신다"며 활짝 웃음을 지어 보였다.

린,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위안잔치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불자 가수들의 특별공연으로 진행됐다. 지난 12년간 탑골공원에서 매월 2~3회 노인과 노숙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해온 조계사 청년회원들은 점심공양 및 경내 자원봉사를 맡았고 노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드렸고, 서울불교청년회 회원들은 무료약국을 찾은 430명의 노인들에게 보시행을 실천했다.

웃음소리 가득한 경내

주최장 한켠에는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부 회원들이 화장유언 남기기 캠페인을 벌여 900명의 노인들이 동참했다. 청년불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문 기술을 이용해 구강검진, 무료이발, 온열치료, 영정사진 촬영, 기 맞사지 등의 서비스를 1400명의 노인들에게 정성껏 베풀었다. 마치 친 손자손녀처럼 손을 잡고 허물없이 대하는 청년불자들로 인해 노인들의 얼굴은 점점 밝아져 갔고 여겨지거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조계사 청년회장 전중호(35)씨는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한때나마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 보람을 느꼈다"며 "우리 청년불자들의 인력을 모아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nia.com)

주제가 있는 법문

재소자 교화 '인간방생' 법보시 동참 많았으면...



만오스님 포항 용주사 주지

청송 제1보호감호소 재소자들을 앞에 놓고 법문을 할 때는 늘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가엾은 중생들이 왜 이리도 억울한가 하고, 이들 중에는 흔히 세속에서 말하는 별이 최하가 6개, 최고는 22개 심지어 23, 24개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인들이 가까이 가기도 꺼려하는 소위 '총악범'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가까이 하고 그 본성을 들여다보면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성은 착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수행자들이 만나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마음과 눈, 귀가 함까지 치료돼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처님의 가피력에 고마움을 느끼며, 불자들이 재소자나 비행 청소년 등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의 선도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강으로 물고기 나누는 방생만을 갈 것이 아니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으로 인간방생 가시기를 권유합니다. 전과자나 비행청소년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정도 좁이야" 하며 사소한 잘못을 기뻐 여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큰 죄 하나 지은 사람과 작은 죄를 지은 사람, 어느쪽이 더 죄가 무거운가 하고, 단연히 제자들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더 무겁다고 대답했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큰 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돌을 제자리에 갖다두게 했습니다. 그러자 쉽게 큰 돌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작은 돌을 여러개 가져오게 했습니다. 작은 돌 수십개가 모이자 다시 그 돌 하나하나를 원 자리에 갖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들은 어디서 가져온 돌인지 알수가 없어 정확히 제자리에 갖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돌처럼, 드러난 죄는 참회를 통해 새롭게 거듭날 가능성이 있지만 작은 잘못은 습관처럼 반복하다 보면 방심하거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물어두게 됨으로써 오히려 죄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참회해야 하는 깨달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그늘진 사회 밝게 비추요

사람들은 이들을 딴 세상 사람으로, 상대해서는 안될 끔찍한 벌종으로 여기고 경계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다보니 충분한 죄값을 치르고 새 삶을 찾아 사회로 나간 사람이라도 그러한 경멸과 멸시를 당하면 피해의식을 가지고 되고 그 화살이 종종 광범한 사람들에게 하는 등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전과자들은 자주 '별'을 달게 됩니다. 처음부터 살인범, 총악범이 되고 자 한 사람은 없고 또다시 교도소나 감호소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불안속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부처님말씀을 전하는 일, 인과응보의 도리를 알려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자들이 후원해주는 법보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교정교화사업에 뛰어들 지도 십여년이 넘습니다. 수행자들과 만나고 상담을 하면서 나는 기쁨과 만족보다 언

생활속의 불교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부처님께서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을 말씀하셨다. "자신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하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겨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역경을 수행해도 될 듯 말 듯 하다'는 생각을 하기 일쑤이다. 관례 포기하고 그냥 '복이나 돌북 주십시오' 하기도 한다. 불도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남기셨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라면 차라리 '나를 열심히 믿고 내게 구원을 청하라'고 하시지 왜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하셨을까?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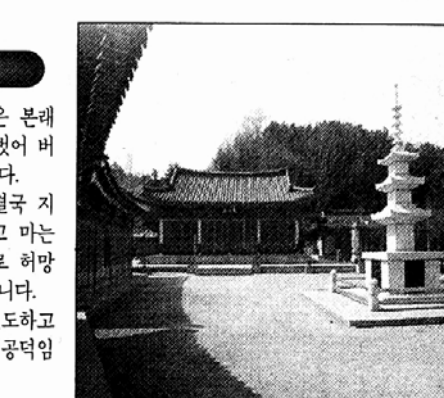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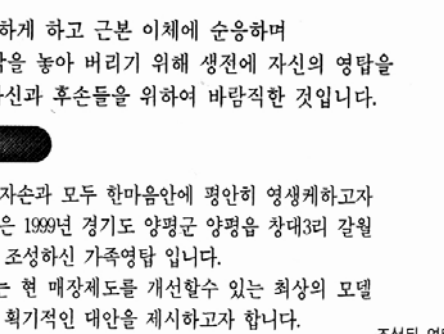
려 보이도 그것은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앉아서 가로등을 쳐다 보며 내 방도 것처럼 밝아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안에는 불을 켜야지 밖에는 불 밝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밖으로 찾으려니가 오만가지에 다 걸린다. 그러다 보니 늘상, 좋은 이름, 높다는 사람, 번듯한 건물을 찾아 헤맨다. 도무지 몸과 마음만 바랄 뿐 별무소독일 수밖에 없는데도 앞을 닦아 가며 향축을 밝히고 공양을 올린다. 그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일인지도 모른 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당신의 노예로 삼고자 세상에 오신 게 아니다. 사

람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노예처럼 살아가는 중생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대자유인으로 만들고자 이 세상에 오시어 법을 설하신 것이다. 자등명 법등명, 바깥 형상에 빌고 절하지 말고 마음으로 불을 밝혀 자성불에 귀의하라는 말씀이다. 자성불을 외면하고 타력에 기대는 것은, 갈증에 시달리면서도 물 마실 생각을 않고 물병만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다. 사람을 갈구하면서 제 아비 제쳐놓고 남의 아비 찾는 것과도 같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유를 찾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어찌 그 뜻을 저버리고 형상이 매달리며 타력에 의지할 것인가. ■龍眼

갈월사 영탑(靈塔)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들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 ▶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영탑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참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문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향평읍 창대3리 갈월사
▶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찾고 싶은곳 · 영원한 심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견건하고 엄숙한 인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